

# ‘바가지 청자’ 수사 골치 아프네…

문화재에 대한 고도의 전문적인 시각을 가져야 풀어낼 수 있는 사건을 관할이라는 이유만으로 시구 지청에서 해결하려고?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강진 바가지 청자 매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29일 광주지검 장흥지청에 따르면 강진군이 지난 13일 2007년과 올해 매입한 10여대 청자유물 감정 위원회 등 8명을 사기와 업무상 배임죄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 수사가 피고소인들의 소환불응과 전문분야 수사의 어려움에 부딪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강진군은 지난 2007년 사들인 ‘청자상감한국보안문화협주’를 당시 감정위원 3명이 허위로 감정,

## 고소 사건 접수 광주지검 장흥지청 2주째 수사 난항

### 피고소인들 소환 불응 … 문화재 수사 전문성도 부족

8천만~9천만원에 불과한 도자기를 10억원에 삼았다는 의혹이 최근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된 것과 관련해 사법적 판단을 얻고자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우선 수사는 고소된 감정위원들의 소환 불응으로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으나 대부분 서울 등 수도권에 거주해 연고지 관찰 검찰로 이첩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소인들의 말이라도 들어봐야 사건의 실마리

를 볼 수 있지만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버티는 바람에 수사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전문성 부족. 문화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부족, 청자 매입에 관련한 감정위원들이 그동안 수십 년 유물만을 감정해온 국내 도자기 분야 전문가들이라는 점을 감안, 수사진도 그 이상의 식견을 갖춰야 잘질을 가려낼 수 있지만 사정은 전혀 다르다.

현재 이 사건은 광주지검 장흥지청 일반 행정분야와 종합사건을 다

루고 있는 1호 검사실에서 검사 1명과 입회서기 등 2명이 맡고 있다. 일반적인 사건을 맡아왔던 수사팀으로서는 갑자기 불거진 문화재 전문 사건이 당혹스럽기만 하다.

따라서 장흥지청 주변에서는 이번 사건이 전문성을 갖춘 수사수사력과 장비 등에 의한 특별수사 대상인 점을 고려할 때 일선 지검, 지청이 아닌 대검이나 특수 수사담당 기관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즉, 지금이라도 사건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쉽게 얻거나 도자기 감식 특수장비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의 검찰청으로 이관해야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결론을 얻을 수 있는지이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 중국, 여수박람회 참가 확정

중국이 2012여수세계박람회 참가를 공식 확정해 우리 측에 알려왔다.

29일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여수박람회 조직위, 주중한국대사관, 중국국제무역촉진위 등 3개 기관 대표가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의 여수박람회 참가 문제와 관련, 회의를 진행하고 중국의 여수

박람회 공식 참가를 알리는 내용의 공문을 우리 측에 전달했다.

중국의 이날 참가 결정은 지난 10일 중국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을 중국이 이행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이날 현재 여수박람회 참가를 확정한 나라는 총 29개국으로 늘었다. /최권일기자 cki@



광주일보(사장 유제철·왼쪽에서 두번째)와 인터넷 뉴스서비스 제공업체 소셜뉴스(사장 고준희·세번째)는 29일 광주일보 16층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 인터넷 광주일보-소셜뉴스 협약

### 사용자 참여 뉴스 서비스 조만간 제공

광주일보(사장 유제철)는 29일 오전 본사 16층 회의실에서 사용자 참여의 인터넷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셜뉴스’와 업무협약을 맺고 인터넷 광주일보를 통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소셜뉴스는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일보 홈페이지에 뉴미디어 플랫폼 기술 및 소프트웨어를 지원하게 된다. 이에 광주일보는 지원 서비스에 대해 영업 및 마케팅 대행 권한을 소셜뉴스에 부여하

는 등 양사의 기술·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공동 사업을 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양사는 공동수익 창출을 위해 평생교육, 직능교육, 취업교육, 방과 후 교육 등 기업 및 일반인 대상의 교육사업을 공동 진행한다. 특히 오프라인 및 온라인 교육 사업을 위한 기획, 과정 개발, 교육장소 제공, 홍보 및 마케팅 등을 공동으로 전개하게 된다.

소셜뉴스는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일보 홈페이지에 뉴미디어 플랫폼 기술 및 소프트웨어를 지원하게 된다. 이에 광주일보는 지원 서비스에 대해 영업 및 마케팅 대행 권한을 소셜뉴스에 부여하게 된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 中日만평

- 김종두



초상집에 그가 웃고 나타나다

**광고접수안내**

• 직통: 227-9600 • FAX: 227-9500

### 자본감소공고

당 회사는 2009년 10월 30일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자본의 총액 금 1,315,000,000원을 금 1,205,000원으로 감소하고 그 남은 1주 의 예금금액 금 10,000원의 주식 11,000주에 대하여 현재 각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총수에서 균형 비율로 무상·소홀하여 발행주식 총수 131,500주를 120,500주로 감소할 것을 결의하였음.

이 자본감소공고에 이의가 있는 제권자는 이 공고 게재일之日起 1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이에 공고함.

2009년 10월 30일

유한회사 근우건설

목포시 용당동 967-346

대표이사 최 대 운

### 상속한정승인공고

방 박순득(650724-2783019)상속에 대한 공고, 한정승인(제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에 관한 민법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제권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됨.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가첨지원

2009. 10. 28

공 고 인: 이복영

한정승인수리일: 2009. 10. 15.

공고기간: 2009. 10. 30 ~ 2009. 12.29(2개월)

연락처: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77-1

실험체사업자등록번호 1106호

이복영(010-8618-9449)

### 판결공시

사건번호: 광주지법민원 2008 고단 3298

입무상·횡령

피고인: 이동계, 양희승

위고인은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09년 10월 28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박정수

### 상속한정승인공고

방 김복남(480508-1037742)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제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에 관한 민법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제권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됨.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가첨지원

2009. 10. 28

공고인: 김호열

한정승인수리일: 2009. 10. 23.

공고기간: 2009. 10. 30 ~ 2009. 12.29(2개월)

연락처: 광주 남구 흥덕로 725

송학정(010-9923-0603)

### 채권신고공고

본 회사는 2009년 9월 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결의 되었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2009년 12월 1일까지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기일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가첨지원

2009. 10월 30일

주식회사 동강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내발리 381-8

청산인 김 도희

# “자율통합 시·군 명품도시”

행안부, 숙원사업 지원…여론조사 결과 내달 12일 발표

정부는 자율적으로 통합하는 시·군에 대해 지역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명품 성장거점 도시’를 육성하기로 했다. 이달 과 행정안전부 장관은 29일 정부종합청사에서 한 자율통합 브리핑에서 “자율통합 지원 계획을 통해 지역 자체들이 시·군 통합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법정부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지원책에 따르면 청주·청원·전주·완주, 의정부·양주·동두천 지역은 행정구를 추가로 설치해 주민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지난 8월 26일 발표한 ‘자치단체 자체통합 지원계획’에 포함된 통합 인센티브 중 법적 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정부가 제출할 예정인 ‘통합시 설치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통합대상인 18개 지역, 46개 시·군에 대한 주민 의견 조사 결과를

다음달 12일께 발표하고, 원칙적으로 창성률이 50%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통합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조사 결과를 우선 해당 지역 국회의원과 도지사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필요하면 주민 투표를 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관계부처 제보된 무안, 경기 구리시와 충북 청원군, 전북 완주군 등의 단체장과 공무원에 대해선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경과 협조해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또 통합반대 단체 등이 행안부를 사칭해 여론조사를 할 경우 즉각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 전남 ‘100세 이상’ 186명

### 여자가 165명…122세 보성 변옥업 할머니 최고령

전남지역 100세 이상 장수노인은 186명으로 이 가운데 87명이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100세 이상 노인을 파악한 결과 남자 21명, 여자 165명으로 총 186명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여수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순천 19명, 고흥·보성이

각각 14명, 신안 12명, 나주·광양·강진은 각각 8명 등이다.

도내 최고령자는 주민등록상으로 122세인 보성군 변옥업 할머니로 나타났지만 주민등록 신고가 무려 23년이나 빠르게 돼 실제 나이는 99세로 나타났다.

또 주민등록상 110세 노인이 4

명이었으나 이중 실제 110세인 노인은 순천에 거주하는 박천례 할머니가 유일해 실제 최고령자로 나타났다.

100세 이상 부부가 함께 생존해 있는 경우는 함평 유수남(106)·채영석(여·106) 부부가 유일했으며, 고령자는 대부분 아들 딸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체로 건강한 노인은 87명으로 조사됐다. /충청기자 redplane@

## “기후온난화 방지 韓·日 심포지엄 열자”

### 박준영 지사, 연안 시·도·현 교류 회의서 제안

박준영(사진) 전남도지사는 29일 일본 야마구치현에서 열린 제18회 한일 해협연안 시·도·현 교류 지사회의에 참가, 지구온난화 방지시책 성공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인적교류와 심포지엄 개최를 제안했다.

한일 해협연안 지사회의는 전남도를 비롯해 부산시, 경남도, 제주도, 일본 후쿠오카, 사가, 나가사키, 야마구치현 등 한일 해협연안 지사 8개 시·도·현이 참여해 전남도가 주민등록상으로 122세인 보성군 변옥업 할머니를 통해 전통과 현대의 협력으로 한일 해협연안 지사 8개 시·도·현이 함께 협력해온 경험을 소개하는 자리로 2009년 10월 29일 개최된다.

박 지사는 이번 회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전인류의 공동 관심사로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들을 설명했다.

박 지사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실천운동, 자연

환경 보전 및 친환경 지역개발,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육성 등의 시책을 펼치고 있다”며 “8개 시·도·현에서 추진하는 지구온난화 방지시책 성공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인적교류와 심포지엄 개최를 제안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구환경 문제에 대한 시책을 집중적으로 논의, 지구온난화 등 환경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 문제 해결에 한일 해협연안 시·도·현이 인적, 기술 교류 등을 포함해 공동 대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충청기자 redplane@kwangju.co.kr